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강하고 튼튼한 공군



GLOBAL & INSIGHT

06



- 06 경청노트 국가안보와 공군의 가치
- 08 Pioneers up above 존 와든
- 10 World-Wide Vision Exhibiting airpower
- 14 Global AF Apache Longbow Down
- 18 Leadership+ 고난은 성공을 위한 음모

공군IN

20



- 20 기획특집 강하고 튼튼한 공군!
- 32 Photo Sketch 도발하면 공군력으로 제압한다! Max Thunder!
- 38 포토프레임@AF 전투비행단 대비태세 점검
- 40 AIR FORCE MONTHLY 2012. 06. NEWS
- 42 생각하는 그림 창공의 영웅, 이근석 대령

COVER STORY



강하고 튼튼한 공군!
 표지촬영(앞, 뒤) 김재기 | 프리랜서 사진사
 표지모델 남 중위 정승제 | 1전비 206대대
 여 대위(진) 이소영 | 15비 255대대
 캘리그래피 8급 엄이주 | 국군인쇄창

CULTURE 36.5

46



- 46 Hollywood English 마다가스카3
- 48 인생은 아름다워 동백꽃의 여인, 라 트라비아타
- 50 Art in Everyday 못찾겠다! 피꼬리
- 52 Air-Supply 지금도 꿈은 이루어진다
- 54 Preview 6월의 문화행사

OPINION

56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4월호를 읽고서
- 56 책마을 ,

MONTHLY MAGAZINE VOL. 408. 2012. 06

※ 공군지를 인터넷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airforce.mil.kr>)
 ※ 이번호 (Health Diary)는 한 회 쉽니다.

발행일자 2012년 6월 1일(통권 제408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김승표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중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4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바로 **[볼매]**다. 추운겨울 잠들어 있던 세상을 깨우 01
듯, 힘든 일상으로 지쳐있던 내 눈과 마음을 재미있고 신선한 읽
을거리로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Green Air Force, Green Growth’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Eco
Driving’을 받는 운전병으로서 공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다룬 이번
기획이 정말 Good!이었습니다. 또한 공감의 인기 웹툰작가 송님
이 그린 <기획특집> ‘우리 장병들이 달라졌어요’ 또한 정말 재밌
게 읽었습니다. - 충남 계룡시, 지인구

02 월간 「공군」은 **[환경지킴이]**이다. 왜냐하면 월간 「공군」 4월호
에서 보듯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 공군지 인크도 친환경 인크
라고 들었습니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공군지는 정말 최고! 다양
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매월 잡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병사들의 실생활에 좀더 밀접한 <기획특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경기 성남시, 하지민

월간 「공군」은 **[하늘]**이다. 높고 파란 하늘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03
참신한 방법으로 전해줍니다. 독자와 편집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공군」은 힘을 모아 영광을 방위하는 공군인의 ‘Must Have
Item’입니다. 앞으로 많은 공군인들이 꿈꾸며 잠시 쉬어갈 수 있
는 넓은 하늘이면 좋겠습니다. 월간 「공군」은 항상 다양한 시도를
하고, 독자들의 의견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있던 ‘글’ 자체에서 느낄 수 있
는 담백함과 고소한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달 좋은 월간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경기 평택시, 이태호

04 월간 「공군」은 **[성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도록 발전해나
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현재 아들을 공군에 보낸 부모입니다.
저는 육군에서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공군에서는 어떤 군
가와 동작들이 있는지 다뤄주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새로운 표
지와 재밌는 글들 때문에 즐겨 보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
해 월간 「공군」이 더욱 발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 부산 금정구, 임성모

월간 「공군」은 **[정보]**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 05
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Air-Supply>의 ‘연애
하는 왕 보셨나요?’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강명석 편집장님의
필력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배우 김수현의 연기는 정말 최
고였지요. 매달 편집자님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월간 「공
군」이 잘 발행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독자들을 위해 한층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기대합니다. - 서울 성동구, 전행숙

06 월간 「공군」은 **[커피]**다. 하루라도 안 마시면 커피 생각이 나
고, 허전한 것처럼 매일 커피를 대하듯 매달 월간 「공군」을
만나면서 재미와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
집> ‘Green Air Force, Green Growth’가 아무래도 눈에
띄더군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곳곳에서 그
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공군 장병들도 에너지 절약과 재
활용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히려 제가 배워갑
니다. 매호 기획, 취재, 편집 등으로 힘드시텐데 그 노력만큼
수많은 독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 대구 달서구, 박미경



Global & Insight

* Leadership+
* 끄나은 선운를 위한 음포

* Global AF
* Apache Longbow Down

* World-Wide Vision
* Exhibiting airpower

* Pioneers up above

꽃 하든

* 경채노트
* 국가안보와 공군의 가치

국가안보와 공군의 가치

더플백을 짊어지고 부대로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한여름 햇볕은 허를 빼물 만큼 뜨거워 갓 지급받은 하복 등판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지금이야 서울에서 두 시간도 채 안 걸리는 대산이지만, 그때는 시외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며 비포장길을 종일 달려야 닿는 오지였다. 지친 동기생 몇몇과 함께 부대 정문에 도착해 올라다 본 산꼭대기 레이더 돔 모습은 아득했다. ‘아, 낯설고 향량한 저곳이 내 청춘의 무덤이구나...’ 한숨이 푸욱 절로 나왔다. 벌써 35년 전, 망일산 방공관제대에 배속 받은 날이었다.

당시 그곳은 병사들에게 굳이 엄하기로 악명 높은 부대였다. 북부방공작전의 중심기지로 한치의 오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참 병들에게 이끌려 잔뜩 긴장한 상태로 작전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어떻게든 3년만 무사히 때우자’는 안이한 생각은 순간 사라졌다.

대신 충격과 전율이 몸을 휘감았다. 레이더화면들만 푸른빛을 발하는 어둠 속 거대한 상황판엔 한반도의 무수한 비행기 항적이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전시되고, 전투기 긴급발진을 알리는 요란한 버저 소리가 간단없이 작전실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다.

‘이게 뭐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이 땅의 진짜 현실이 비로소 손에 잡힐 듯 확연하게 다가들었다. 병사가 맡은 일이라야 상황판에 항적을 그리는 정도였지만 신경 곤두서있기는 관제장교, 부사관들과 하나 다를 게 없었다.

북한 전투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전술조치선에 접근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아군 전투기들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평행비행을 하는 숨가쁜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다. 그때 북한 전투기들의 주요 출격기지이던 황주 곡산 미림 온천 등 비행장들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젊은 날 공군에서의 이 짧지만 생생한 경험은 평생의 국가관, 안보관을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우리의 안온한 일상은 아슬아슬한 평화의 균형 위에 간신히 얹혀 있는, 하시라도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것이었다. 남북 피아의 힘에 큰 차이가 없던 당시여서 긴박함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력비교조차 무의미할 만큼 남북의 국력격차가 커진 21세기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빠져리게 경험한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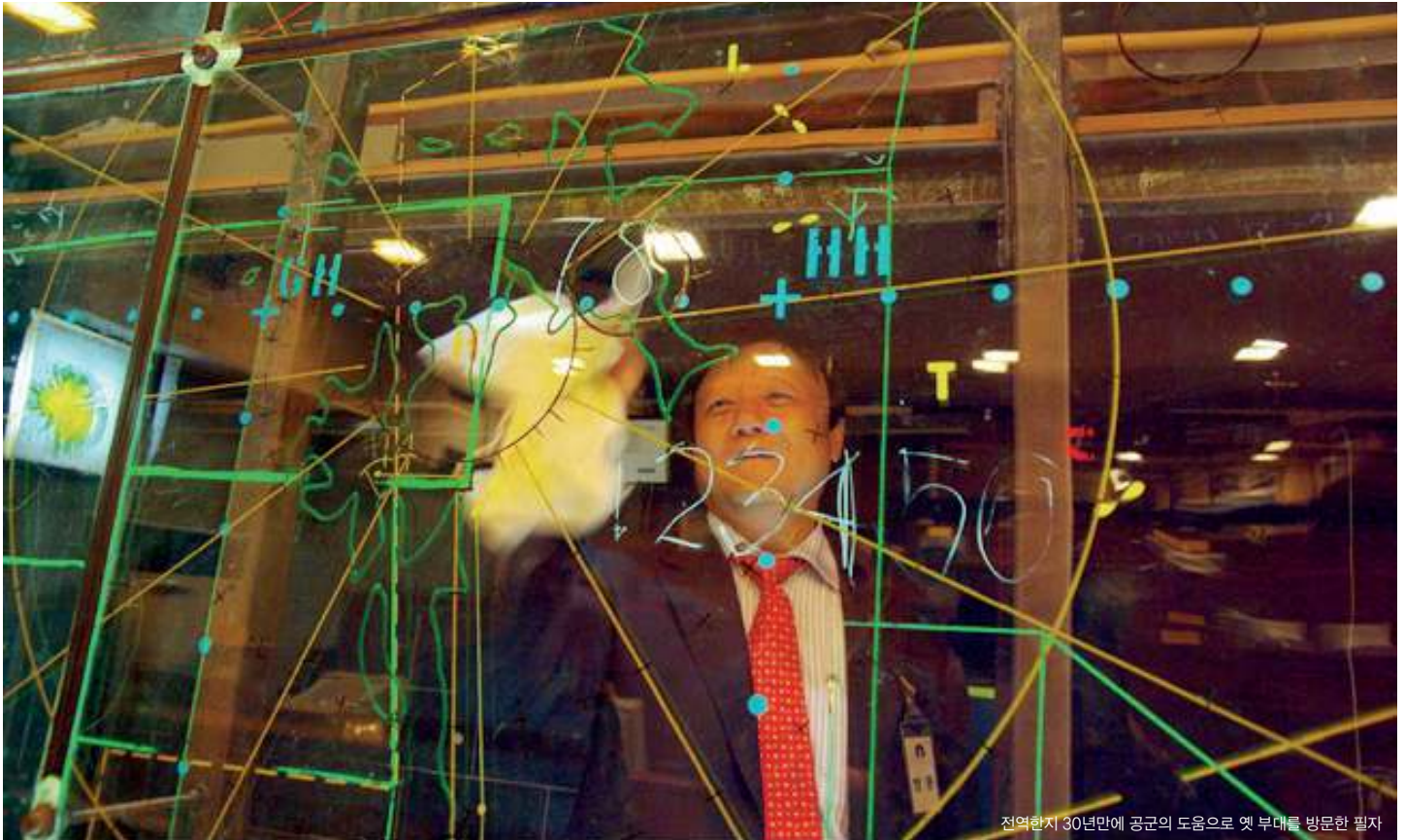
세상은 지금 거대한 변혁기에 들어서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경제서부터 케인즈 경제학,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또 다른 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도 30여 년 만에 마침내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알다시피 신자유주의는 오직 최대 생산성과 효율성 원칙에 기반해 유지되는 경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속에서 평범한 다수는 쓴살처럼 내달리는 세상의 열차를 잡아타는 일 자체부터 만만치 않다. 혹 용케 올라탔다 해도 달리는 열차에서 한번 발을 내리면 다시는 되잡아 타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이런 무한경쟁과 승자독식구조에서는 누구도 안정된 행복감을 유지하기 힘들다.

지난해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해 서구유럽 전역을 휩쓴 젊은이들의 시위사태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몸부림이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 리 없다. 대학생, 학부모들의 등록금 인하요구를 비롯해 복지와 사회보장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기존 정치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팻캐스트같은 비전통적 매체가 주목을 받고, 정치와는 무관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상도 이런 변혁의 정서와 무관치 않다.

‘더 이상 이 길은 아니다’ 라는 데는 대체로 인식이 모아지지만, 문제는 앞으로 갈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두가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들판에 내몰린 형국이다. 정의, 배려, 소통, 신뢰, 겸손 등의 가치가 더 중시되어야 하는 세상으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좀 더 분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해도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이 돼야 하는지 아직은 다 안개 속이다. 치열한 대화와 논쟁을 통해 방안을 차근차근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전역한지 30년만에 공군의 도움으로 옛 부대를 방문한 필자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해지는 것이 국가안보다. 국가의 울타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 변혁의 물결을 감당하기 힘들다. 많은이들이 잘못 생각하듯 국가안보는 결코 보수의 낮은 가치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갈등과 대립과정을 거쳐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튼튼한 안보는 움직일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울타리가 부실해서야 안에서 무슨 논의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The Highest Power Defending Korea)’, 공군의 이 캐치프레이즈를 볼 때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매번 감탄하곤 한다. 공군의 역할과 이미지를 이토록 간결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구가 또 있을까. 그러나 공군은 단순히 높기만한 힘은 아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군은 또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힘(Fastest & Strongest Power)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이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일이 있다. 벌써 재작년 일이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때 만약 공군에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자주포 몇 문의 응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력으로 전광석화처럼 도발지역을 제압했을 것이다. 또 우리가 훨씬 우월한 입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후의 상황도 당당하게 수습해나갔을 것이다. 수시로 “연평도 불바다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식의 모욕적 언사를 들어가며 북한에 능멸 당하는 일 따위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힘과 속도는 제한된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 뿐 아니라, 아예 도발의지를 꺾어버리는 예방 차원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숭한 국민과 군인의 불필요한 희생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군은 또한 가장 경제적인 힘이다. 이러한 남다른 힘에 대한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분명하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안보와 공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이 엄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공군인들에게 새삼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생각난 김에 날씨 좋은 날 옛 부대 근처 바닷가로 한번 드라이브라도 해야겠다. 비록 그때는 힘들었어도 지나고 나면 모두 다 고맙고 그리운 추억이므로, **AF**

존 와든 John A. Warden III

1943. 12. 21 ~

‘사막의 폭풍작전’ 시 연합군의 항공작전인 병행전을 주창한 현대의 항공전략이론가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한 이래 적이 공중우세를 확보한 상황에서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 역으로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에 패배한 나라도 없다”

존 와든 III세는 1943년 텍사스의 맥키니에서 태어났다. 가족 중 네 번째로 군문에 들어선 그는 1962년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생도 시절 국가안보학을 전공했는데, 공군이 육군의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무르며 공군의 미래가 밝지 못한 것을 우려하였다. 당시 와든은 유명한 전략가인 J.F.C. 풀러 장군이 쓴 ‘알렉산더 대왕의 리더십’을 읽고 감동해 그를 찾아가는데, 이를 계기로 풀러 장군은 와든의 지적 멘토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와든은 역사와 전략, 그리고 전쟁과학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와든은 1965년도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마조리에 앤 클라크와 결혼, 이듬해 12월 쌍둥이 남매 엘리자베스와 존을 낳았다.

1967년 4월,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발생했을 때 와든은 제1진으로 팬텀기를 조종하여 한국에 급파됐다. 1969년에는 치열했던 베트남전에 자원 참전해 OV-10 브롱코를 조종했고 무려 266회의 전투출격을 기록했다.

베트남전을 겪으며 와든은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교전규칙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또한 전략적 수준에서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느꼈다. 그에게 베트남전은 일관성 있는 전략적 접근, 압도적인 군사력, 명확한 목표, 출구전략, 정치-군사의 결합 등과 같은 전쟁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터득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와든 대위는 아무리 우수한 전술이라도 우둔한 전략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 경험은 그가 앞으로 진력하게 되는 항공공력 이론 및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의 기초가 되었다.



걸프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B2 폭격기

1975년 와든은 텍사스기술대학에서 ‘국가대전략 수준에서의 정책결정과 정’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해 8월 와든 소령은 드디어 기획장교로서 펜타곤에 입성했다. 당시 와든은 펜타곤에서 중동업무를 담당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1차 걸프전 기획의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됐다. 그가 고위직 장교들과 정보전문가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이때였다. 그들은 와든이 일반적으로 전투조종사들의 무관심 영역인 전력 구조, 개념, 교리 등에 관한 전략사상과 전략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와든은 일명 군사전략에 있어서의 불쏘시개 역할을 수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국방지도부에게 두려움 없이 견해를 발표할 뿐만 아니라, 군의 전력 구조, 지휘체계 등에 관하여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는 이미 항공공력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그에 대한 평판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와튼은 종종 빌리 미첼에 비유됐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하며, 정치적 여건이나 자신의 신상에 미칠 영향 등에 구애받지 않고 급진적인 변화를 갈구하는 혁명가였기 때문이다. 와튼은 39세 때 대령으로 진급해 국방대학원에 입학하는데, 1988년 그의 항공전략사상의 결정판인 「항공전역(The Air Campaign)」을 출간했다. 이 책의 내용은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대부분 구현됐고, 현재에도 프로메테우스 전략기획체계로 알려져 있다.

「항공전역」은 다시 한 번 와튼의 명석함을 드높이는 평가와 동시에 또 다른 비판을 일으켰다. 와튼은 항공력이 현대전 승패의 결정적인 전력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전통적 교리였던 공지전투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을 설파했다. 기존의 공지전투교리는 항공력이 지상작전을 위한 지원전력이며 항공력 자체로는 전혀 전략적 수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미 공군역사가 리처드 할리온은 “이 책은 미국의 국방정책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989년 독일에서 제36전투비행전대장직을 마치고 귀국한 와튼 대령은 펜타곤의 전투발전팀장으로 보임되어 그의 항공전략사상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지속했다. 그는 특히 ‘범세계적 도달거리, 범세계적 타격(Global Reach - Global Power)’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항공력은 국가전략차원의 결정적 군사력이다’라는 개념을 확산시켰다. 이에 와튼은 펜타곤의 최고 항공력전문가로 널리 알려진다.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놀라운 기습이었다. 이라크 관할군사령관 노만 슈워츠코프 장군은 펜타곤에 이라크군을 전략 목적으로 응징할 항공전문가를 요청했다. 후세인의 군대가 무분별하게 기동할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슈워츠코프 장군과 파월 장군의 요청에 와튼은 그가 이끄는 체크메이트팀을 이끌고, 쿠웨이트 해방작전에 참여한다.

와튼은 사담 후세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사막의 폭풍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이 작전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한다. 파월 장군은 “와튼의 전략이 사막의 폭풍작전 항공전역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슈워츠코프 장군도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와튼과 나는 우리나라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전략 개념을 함께 그렸다”라고 와튼의 기여를 찬양했다. 와튼의 5개 전략동심원 모델은 1990년 8월말 슈워츠코프 장군에게 보고된 항공전역계획의 중심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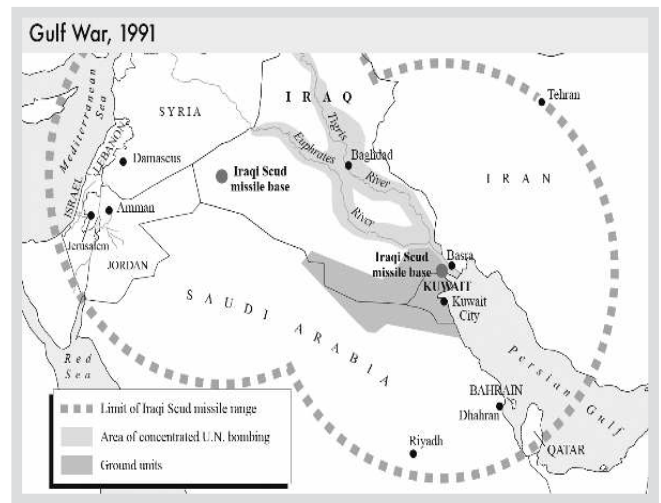
와튼의 지론, 즉 적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기능을 와해시켜 적을 전략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폭격은 걸프전의 ‘Instant Thunder’ 계획의 중심사상이 되었다. 효과기반작전, 항공력의 목표 및 적용에 관한 와튼의 항공력이론은 그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명석한 항공력이론가로 자리매김하였다.

1991년 공군성장관의 추천으로 와튼 대령은 덴 퀘일 부통령의 정책 및 국가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와튼은 미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위원회에서 부통령실을 대표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퀘일 부통령은 또한 와튼을 고위관료들에게 소개하여 6시그마 캠페인을 통한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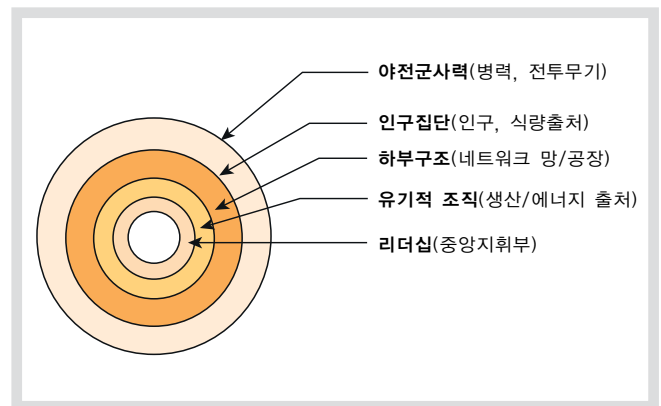
이후 와튼은 공군지휘참모대학 총장으로 3년간 재직했다. 그는 재직 중, 학교의 커리큘럼을 실질적인 목적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고립되어 있던 학교를 펜타곤, 국방부 및 여러 안보연구기관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시켰다. 그가 재임한 1994~5년 시기에 공군 지휘참모대학은 명예로운 상들을 수차례 수상하였고, 기간 중 배출된 약 1,800명의 젊은 장교들은 와튼의 영향으로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추고, 미 공군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와튼은 1995년 6월 대령으로 예편하여 기업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그는 지금도 군사전략개념을 기업에 적용시키는 컨설팅을 하며 지내고 있다. 그는 또한 리랜드 러셀과 공동으로 「스피드시대의 승리(Winning in Fast Time)」라는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프로메테우스라고 부르는 그의 전략사상과 효과기반작전에 관한 아이디어 등을 주로 담고 있다.

미 공군역사실은 와튼을 ‘항공 및 리더십 중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한 인물로 평가했다. 이는 항공력이 지상작전의 지원전력에 불과하다는 전통적 공지전투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론으로, 항공력이야말로 현대전 승리의 결정적 전력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전략사상이라는 것이다. 로버트 페이프, 에드워드 루트왁, 알란 스티븐스, 리처드 할리온, 필립 마일링과 같은 전문가들은 와튼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가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데이비드 멧츠 같은 역사는 와튼을 줄리오 두헤, 휴 트렌차드, 빌리 미첼과 같은 반열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F**



Gulf war air campaign



5개 전략 동심원 모델

Exhibiting airpower

미국 오하이오 주,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에 위치한 국립 미 공군박물관은 총 360여 점에 이르는 항공기 및 미사일을 소장하고 있다. 약 2만 800평 규모의 박물관에는 초창기 전투부터 오늘날까지, 공군과 관련된 수천 가지의 물품이 전시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공군박물관에 전시된 항공기 중에는 일본 나가사키 지방에 핵폭탄을 투하했던 B-29 Bockscar,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공개 전시된 B-2 Spirit 스텔스 폭격기 등이 있다. 또한 영화로 유명해진 멤피스 벨 (Memphis Belle) B-17 Flying Fortress 항공기는 현재 박물관 격납고에서 복원 중이다.

공군박물관의 규모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갤러리와 전시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 약 5,620평(18,578.512m²)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온라인을 통한 가상 투어, 개인용 파노라마 및 팟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조 www.nationalmuseum.af.mil





- 1
- 2
- 3
- 4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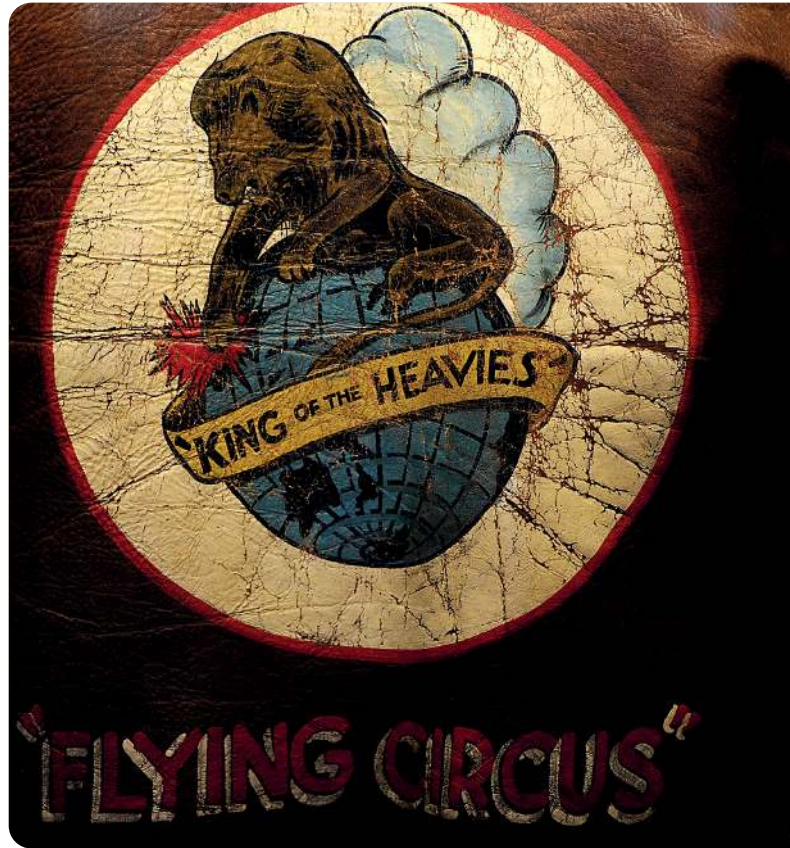
1 더글라스 C-124 Globemaster II 항공기는 한국의 6·25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장에서 대규모 공수작전을 수행했다. C-124의 다른 주요 수송 작전에는 남극 물자수송 임무, 아프리카 콩고의 피난민 대피, 모로코, 칠레 등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홍수 및 자연재해에서의 인도주의적 작전에 투입되었다.

2 폴 크리스트(Paul Christ) (예)중령은 제91폭격항공단, B-17 폭격기 승무원으로서, 16달러를 주고 "Times A-Wasting" 및 401항공폭격대대의 로고를 제작하였다. 그림에는 Lil' Abner의 연재만화의 주인공인 대머리 조(Hairless Joe)와 외로운 고양이(Lonesome Polecat)를 그려 넣었다. 그림의 35개 폭탄은 30회의 독일 임무와 5회의 프랑스 임무를 상징한다.

3 Douglas B-18 Bolo 폭격기는 무장탑재 시, 무게가 27,000파운드나 된다. 승무원 6명이 탑승하며, 시속 215마일 비행, 2,100마일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다. 이 항공기는 30밀리 칼리버 총포로 무장되어 있으며, 4,500파운드의 폭탄을 내장할 수 있다. 1936년 공군은 약 133기의 B-18 항공기를 도입하였다.

4 Bockscar는 미 육군 예하 항공부대의 B-29 폭격기의 명칭으로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Fat Man"을 투하한 항공기이다. "Fat Man"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두번째 원자폭탄으로서, 그 임무는 509혼성전대 예하, 393폭격대대에 주어졌다. 임무 후 항공기에 새겨진 이름은 비행지휘관이었던 Frederick C. Bock 대위의 이름과 유사한 음성과 의미인 "boxcar"라는 뜻으로 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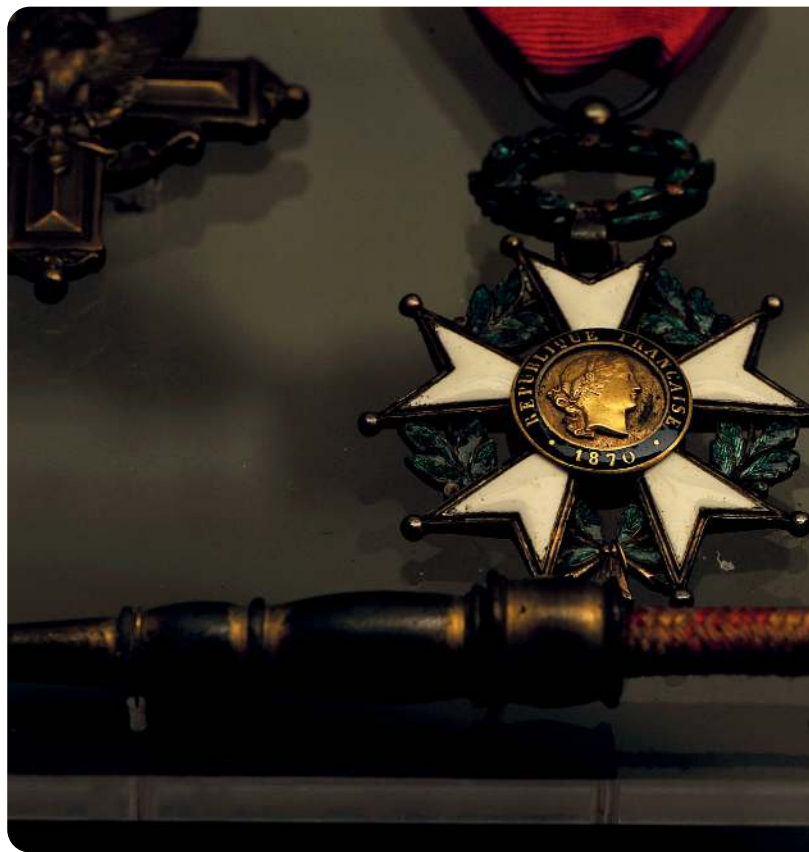
5 1944년, 제380폭격전대는 "공중 서커스"라는 이름을 얻었다. 사진의 조종사 재킷을 기증한 Max Markman 씨는 태평양 지역에서 전대의 계량통제장교로서 근무했으며, 이 재킷을 입고 중중 오퍼버로 B-24 임무에 참여했다.





- ⑥ A-17 항공기는 비행 탐험가인 링컨 엘스워스로 유명한 Northrop사의 “Gamma”의 후속 작품이다. Curtiss A-8과 A-12 Shrike를 대체했으며, 미 육군항공단이 발주하였던, 제2차대전 이전의 싱글엔진 공격형 항공기 중 마지막 기종이었다.
- ⑦ B-17G 42-97683 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의 좌측 모습. 본 항공기는 1945년 3월 15일 격추되어 66회 전투임무에 출격했던 베테랑 사격수 세터 산체스(Sator “Sandy” Sanchez) 중사가 목숨을 잃었다. 꼬리날개 부분은 1993년 발견되었고, 추락지점이었던 독일의 한 마을에서 농부가 자신의 집 바람막이로 사용 중이었다.
- ⑧ 미군 전쟁포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만든 장난감 비행기. 2차 세계대전 당시 124,079명의 미 육군이 적군에 포로로 잡혔다. 그중 41,057명은 미 육군항공단(현 공군의 모체) 소속이었으며, 대부분은 적군의 영역에서 항공임무 수행도중, 항공기가 격추되면서 포로가 되었다. 약 35,621명의 미국인이 독일과 그의 유럽동맹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으며, 약 5,436명의 미국인이 일본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 ⑨ 육군이 선정한 dive bomber(수직강하 폭격기). Douglas A-24는 1942년 남서태평양전에 참여하였다.
- ⑩ 1930년대 당시, 육군항공단(미 공군의 전신)에서 운용하였던 O-28 항공기는 다중임무 소화가 가능한 유용한 항공기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획기적인 항공기인 전투기와 폭격기가 출현하면서 도태되었다. 운항속도는 시속 128마일로서, 1930년 말경에는 대부분 종적을 감췄으나, 일부는 1941년 펄 하버 당시에도 운용되었다.
- ⑪ 항공전투 12승의 전력을 가진 139항공대대의 David Putnam 중위는 1918년 9월 13일 전사하기까지 미 항공부대의 에이스 조종사였다. 그의 수상 경력에는 미 공로 훈장, 프랑스 해외 명예 훈장, 프랑스 군사 메달 등이 있다.







이라크전이 한창이던 2003년 3월 24일, TV 화면 속에서는 격추된 아파치 올보우 공격헬기 한 대가 누스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했다.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은 한 몫부가 소중으로, 아파치 올보우 공격헬기를 격추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영국군영 방송인 BBC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아파치 올보우 공격헬기가 격추된 것은 이라크 바트당원들에 의해 조작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아파치 올보우 공격헬기는 어떻게 격추된 상태로 발견되었을까? 이라크전이 끝난 후에도 의문이 남았지만, 아직까지도 아파치 올보우 공격헬기 추락원인은 속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Apache Longbow Down

이라크 자유작전 ①



01 / 미 공군의 공습에 파괴된 이라크군의 T-72 전차
사진 출처: 미 공군

바그다드로 가는 길

2003년 3월 21일부터 시작된 다국적군의 지상전은 3월 23일,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쿠웨이트에서 시작된 다국적군의 진격은 바그다드 남쪽 100km 지점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개전초기 미미한 저항만을 하던 이라크군은 다국적군을 상대로 점차 강한 저항을 펼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전의 한 축이었던 미 육군 3사단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도시 나시리아를 점령한 후, 북진해 바그다드 입성을 위한 주요 관문 중 하나인 나자프를 향하고 있었다. 미 3사단은 바그다드에서 160km 떨어진 나자프 남동쪽에서 M-1A1 전차를 앞세워 이라크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나자프에 다다른 미 3사단은 이제 레드존 진입 초입기에 들어갔다.



02 / 다국적군은 바그다드 입성을 위한 주요 관문 중 하나인 나자프를 향하고 있었다.
사진 출처: 미 육군

최후의 보루, 레드존

레드존이란 이라크군이 바그다드 주위에 둘러친 방어선으로, 바그다드 남부 80km 지점의 카르발라에서 바그다드 남동부 128km 지점의 쿠틀까지를 일컫는다. 당시 미 중부군사령부 관계자들은 레드존에 이라크군의 최정에 부대인 공화국 수비대를 포함한, 8~10개의 이라크군 사단들이 포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카르발라에 포진하고 있는 메디나 사단이었다. 공화국 수비대 가운데 최정에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나 사단은, 이란-이라크전 당시 다섯 차례나 선봉에 나선 전력이었다. 또한 메디나 사단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도 공화국 수비대의 3개 사단과 함께 참전, 서부 지역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리기도 했다.

03 / 쿠웨이트에서 시작된 다국적군의 진격은 바그다드 남쪽 100km 지점까지 육박한다.
사진 출처: 미 해병대

카르발라를 점령하라

카르발라는 미 3사단이 바그다드로 진격하는 마지막 길목이자,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카르발라의 점령 유무에 따라, 전쟁이 단기전인지 장기전인지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이라크군도 잘 알고 있었다. 이라크군은 메디나 사단 예하의 최정에 부대인 제2기갑여단을 카르발라로 진입하는 길목인 힐라에 배치했다. 미군은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를 이용한 중심작전을 구상한다. 중심작전은 한마디로 적진 깊숙이 치고 들어가 싸우는 것으로, 전선 후방에 위치한 적의 사령부나 예비대를 타격하기 위한 작전이다. 미군이 구상하고 있던 작전은 매우 교과서적인 것이었다. 야음을 틈타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를 힐라 후방으로 투입시켜 제2기갑여단을 공격하고, 날이 밝으면 미 3사단이 전선을 돌파한 후 제2기갑여단과 전투를 벌여 괴멸시킨다는 내용이었다.





04 / 미군은 메디나 사단을 격퇴하기 위해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를 이용한 중심작전을 구상한다.
사진 출처_미 육군

보이지 않는 위협

그러나 이라크군도 바보는 아니었다. 이라크군에는 미국의 할리우드가 만들어 준 헬기 잡기 교본인 영화 <블랙호크다운>이 있었다. 영화 <블랙호크다운>은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모가디슈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은 소말리아 민병대가 대전차 로켓포인 RPG를 이용해 미군의 블랙호크 헬기를 격추시키는 것에 감명 받아, 공화국 수비대 장교들에게 집중적으로 관람시켰다. 이라크군은 영화 속의 소말리아 민병대를 답습했다. 공격헬기들의 전방무장 및 연료 재 보급소로 의심되는 지역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공화국 수비대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공화국 수비대의 지휘관들과 통화하며, 공격헬기의 비행경로를 보고했다. 공화국 수비대의 지휘관들은 공격헬기의 비행경로에 맞춰 방공망을 재구성했다. 이라크군은 공격헬기가 모습을 드러내면 그 지역의 전원을 일제히 차단하고, 모든 화력을 공격헬기를 향해 쏟아 붓는다는 작전까지 세웠다.



05 / 메디나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 미 육군 소속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 34대가 출격했다.
사진 출처_미 육군

뒤통에 걸린 아파치 롱보우

3월 23일 밤, 힐라에 위치한 제2기갑여단을 공격하기 위해 미 육군 제11항공연대 소속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 34대가 출격했다. 이들은 힐라 북쪽의 아부 무스타프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제2기갑여단의 T-72 전차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이라크군은 휴대전화로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들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었다. 이를 모르는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들은 공격위치에 도달하자 공격을 준비한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불빛들이 사라지고 지평선 너머에서, 오렌지색 화염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라크군의 AK-47 소총과 대전차 로켓포인 RPG 그리고 23mm 기관포가 맹렬하게 불을 뿜은 것이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양측의 교전은 날이 밝을 무렵 끝이 났다.

06 / 사담 후세인은 영화 블랙호크다운에 감명받아 공화국 수비대 장교들에게 집중적으로 관람시켰다.
사진 출처_콜롬비아 픽처스



07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는 무장정찰 및 지상군에 대한 근접 지원에 서는 놀라운 전과를 기록한다.
사진 출처:미 육군



08

출격한 34대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가 전부 피탄되었고 한 대는 적지 한 가운데 격추된 채로 발견되었다.
사진 출처:미 육군

형편없는 전과

다음날 미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과는 형편 없었다. 4~5대의 이라크군 T-72 전차를 파괴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비해 미군의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이날 투입된 34대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가 전부 피탄됐고, 이 가운데 한 대는 적지 한 가운데 격추된 채로 발견됐다. 기지로 귀환한 33대의 항공기 가운데 온전한 공격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귀환한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 가운데 6대는 피탄된 상태가 심각하여 신형기체로 교체됐고, 나머지 27대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몇몇 기체는 연료탱크에 23mm 기관포와 RPG를 맞아, 4일 동안 대대적인 수리를 한 후 작전에 투입되었다. 3월 23일의 작전은 한마디로 실패 그 자체였다.



09

미 공군의 A-10 공격기와 육군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의 합동 작전으로 메디나 사단은 패퇴하게 된다.
사진 출처:미 공군

자만과 편견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미군이 이라크군을 너무 알보았다는 것이다. 3월 23일 전까지만 해도 다국적군에게 무서울 것은 없었다. 이라크군은 전선에서 다국적군의 모습만 보면,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항복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바그다드 함락이 가까우면서 이라크군은 독기를 품고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특히 3월 24일에 다국적군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인명손실을 기록했다. 중심작전에 있어 필수적인 공중지원이나 화력지원이 동원되지 않았던 것도 패전의 원인이었다. 이라크군의 전차와 장갑차는 오밀조밀 모여 있기보다는, 다국적군의 공습에 대비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공군의 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중심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자산의 지원 역시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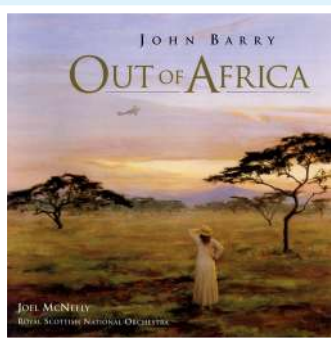
맷으며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를 이용한 중심작전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는 통상적인 작전, 즉 무장정찰 및 지상군에 대한 근접 지원에 서는 놀라운 전과를 기록한다. 특히 미 공군의 A-10 공격기와 육군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는 한 조를 이뤄, 메디나 사단에 맹공을 퍼부었다. A-10 공격기가 행군 중인 이라크군을 공격해 멈추게 한 뒤,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가 정지된 이라크군을 공격하는 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공격헬기는 오늘날 지상전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무기체계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고정익기와 달리 공격헬기는 저고도의 대공 위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장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은 편이다. 이러한 공격헬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고도에서 작전하는 공군 전술기들과의 합동 작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AF**

LEADERSHIP

고난은 성공을 위한 음모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덴마크 태생인 아이작 디너센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사춘기를 방황하며 보내던 그녀는 자살한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한 후 아프리카로 떠난다. 그녀는 케냐에서 10여 년 간 커피 농장을 경영하고 학교도 세운다.

그러다가 남편과 헤어지고, 농장도 실패하더니 결국에는 비행기 사고로 애인까지 죽는 슬픔을 겪는다.

그 후 그녀는 고향 덴마크로 돌아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소설은 영화화되기에 이른다. 시사계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그녀에게 “네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위로했다. 그러자 아이작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한다. “아프리카에 터를 잡았을 때부터 나는 그곳에서의 삶을 나중에 소설로 써보기로 이미 마음먹었어. 갖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평범한 삶보다는 고통을 극복했던 극적인 삶의 경험이 나중에 소설을 쓰기에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다보니 ‘더 큰 고통은 안 오나’라는 은근한 기대를 하면서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

나는 오래전에 이 글을 읽고 나도 언젠가 고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서전을 쓰겠다는 결심을 했다. '97년 IMF 한파가 몰아닥친 시절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고객을 부담하며 우리 회사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심지어 어떤 기업에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 많은 경쟁업체들이 줄지어 도산을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아이작처럼 만약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나중에 내 자서전의 한 부분을 자랑스럽게 장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 결과, 어려운 IMF 시기에도 150% 성장을 이뤄냈다. 결국 고통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맹자에 ‘하늘이 그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굶주리고 궁핍케 하며 일을 망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것은 그가 심신을 연마시키고 지혜로움과 인내심을 길러내어 유능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함이니라.’는 구절이 있다. 역사상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조개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결코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고난과 역경은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이자 음모인 것이다.

낮은 학벌과 가정환경 같은 어려움을 딛고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책을 쓴 서진규 미 육군 예비역 소령은 ‘과거가 미래를 짓밟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했거나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과정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나 또한 자신이 상처 받았던 그 영역이 누군가의 상처를 끌어 안아줄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임을 인생을 살다보니 깨닫게 되었다. 가정이 어려웠으나 잘 극복한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다. 몸이 아파 인생의 의미를 깊이 숙고해 본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들을 현재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오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 한편을 쓰라리게 했던 기억은 무엇인가? 고난을 극복하여 더 큰 리더가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해낸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AF**



강하고 튼튼한 공군!
* 기획특집

도발하면 공군력으로 제압한다! Max Thunder!
* Photo Sketch

참모총장 스케치
* 포토프레임@AF

2012. 06. NEWS
* Air Force Monthly

창공의 영웅, 이근석 대령
* 생각하는 그림

공군IN

기획특집 글, 편집실 사진, 양순호(공군본부 미디어영상팀), 문정화(10비 정훈공보실), 김재기(프리랜서 사진가) **캘리그래피**, 8급 엄이주(국군인쇄창)
도움, 소령 김보경·김승진(이상 공군본부 정훈과), 소령 황선우(공군본부 시설과), 소령 김춘숙(공군본부 의료관리실), 5급 황의돈(공군본부 물자과)



강하고 튼튼한 공군

1 몸 튼튼한 공군

또다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순국선열들과 선배 전우들의 희생 위에 놓여 있음을 이 달에는 다른 때보다 더 무게 있게 상기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공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호국보훈의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선열들이 목숨 던져 지킨 이 나라가 다시는 위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 나라 국민들이 다시는 착취와 수모를 겪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호국보훈의 진정한 다짐이 아닐까요?

월간 「공군」 6월호는 튼튼한 몸, 튼튼한 정신을 갖추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힘을 다하는 공군인들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튼튼한 몸과 튼튼한 정신야말로 우리 공군을 '자랑스러운 선진 정예공군'으로 비상하게 하는 일차적 에너지원임을, 그리고 오늘을 있게 한 선열들이 오늘의 공군에게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1. “일단 잘 먹어야 튼튼하다!”

공군 급식, 위생·건강맛을 모두 잡는다.



“저 진짜 잘 먹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입대한지 얼마 안 되는 유성연 이병(중앙전산소)이 전화기에 대고 이야기 하는 이 말은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사려 깊게 둘러대는 게 아니다. 유 이병은 스스로도 자신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짬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공군은 병사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첫째는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이다. 공군은 지난해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지원합의서를 체결했다. HACCP은 유통, 반입, 검수, 저장, 조리 등 식자재 생산에서부터 음식물 섭취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는 기준이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과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품질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계획적 위생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합의서 체결 이후 공군은 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식당설계 기술, 위생상태 점검, 급식관리자 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 결과 교육사령부 항공과학교등학교 식당이 군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았고, 2013년까지는 공군의 전 식당들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군은 또한 천연조미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사령부는 부대 내 식당에서 인공조미료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멸치, 조갯살, 다시마 등을 분말 형태로 직접 제조한 천연조미료를 쓰고 있다. 국가방위를 위해 가장 꽃다운 나이에 집을 떠나 군복을 입은 병사들에게 집에서 먹던 어머니의 음식 그대로, 자극적이지 않게 천연의 맛으로 차린 식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생과 건강만으로 좋은 급식이라 할 수 있을까. 공군은 부대 식당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교육사령부가 갖추고 있는 종합조리실 습장은 각 부대에서 장병들의 식단을 책임질 급양병들이 주어진 기간 안에 최고의 조리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공군은 이밖에도 정기적인 급양 워크숍을 실시하고, 대한영양사협회의 학술대회와 위생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급식질 향상 경연대회’도 ‘짬밥’의 맛을 끌어올리는 데 큰 몫을 한다. 교육사령부 군수학교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공군의 전 부대에서 출전한 급양요원들이 군 식단에 적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 참여하는데, 입상한 팀은 공군 대표로 서울군인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된다.

No!
인공 조미료

HACCP



2. “임무와 교육훈련은 강하게! 생활관에서는 편하게!”

공군 생활관의 대대적인 변모

빠거덕거리는 녹슨 철제 관물함, 자다 보면 배 위에 턱~ 올라오는 전우의 다리, 그리고 아무리 청소해도 지울 수 없는 퀴퀴한 땀냄새.. 겨울엔 얼어 죽고 여름엔 찌죽을 것 같은 낡은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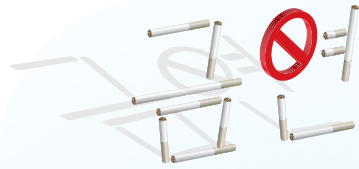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군 내무반의 이미지가 놀랄 만큼 새로워지고 있다. 명칭도 생활관으로 변경된 만큼, 병사들이 고된 임무현장에서 돌아와 다음 날을 위해 푹 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과거 10여명이 머물렀던 마루형 내무반은 6~8명이 생활하는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병사들의 개인별 공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편안한 휴식을 가능하게 해주는게 목표다. 생활관 개선사업은 민자유치(BTL, 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공군 병사 생활관 공사는 광주, 사천, 김해 등 13개 부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쉴 수 있는 생활관을 만들기 위해 공군은 위와 같은 환경개선 노력과 더불어 병영문화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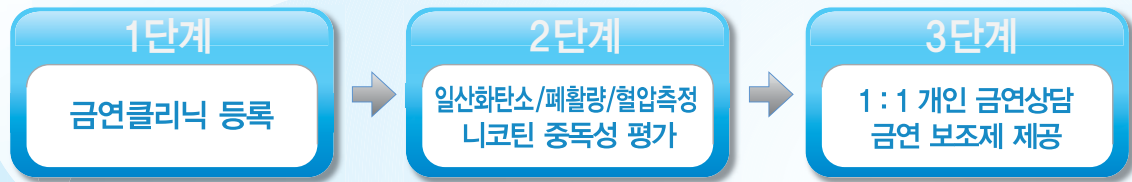


2) 민자유치(BTL) :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Build)한 후 소유권을 국방부에 이전(Transfer)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임대(Lease)하고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20년간 상환하는 방식

3. “공군에서 담배 연기가 점차 사라진다!”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클리닉



비지땀을 같이 흘린 전우들과의 꿀 같은 휴식시간, 옹기종기 모여 앉아 면세담배를 나눠 피는 모습은 우리나라 군대를 떠올릴 때 흔히 오버랩되는 장면 중 하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많은 공군 흡연장병들이 부대에서 제공하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군이 각급 부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일산화탄소 측정치, 폐활량 측정치, 니코틴 중독성 등을 평가해 12주 동안 지속적인 금연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법규가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철저히 유지함으로써 금연 동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 “강한 체력이 강한 정신력과 강한 전투력의 바탕!”

체력증진을 장려하는 조직문화

체력검정의 시즌이 다가왔다. 이 기간만 되면 체력검정에서 합격하기 위해, 또는 더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 운동하는 장병들이 부대 곳곳에 넘쳐난다. 공군은 체력검정이 종료될 때까지 오후 4시부터 자율적인 체력증진 운동을 허가하고 있다.

보다 스마트하게 기초체력을 관리하고 싶은 장병들에게는 공군본부 의무처에서 인트라넷으로 제공하는 체력관리 서비스가 안성맞춤이다.

체력관리 프로그램 적용절차



1단계

건강체력 및
운동체력 측정

항목	최소 측정결과	전환 측정결과	공회 측정결과	평가	정상 범위	변화율	
백혈 30/90(남)	770/95.5	760/95.0	760/95.0	*****	42.9	-10.1 3	
근력	배근력(kg)	250	254	280	*****	114	-60
	각근력(kg)	98.0/72.3	95.0/55.0	87.0/64.0	*****	53.6	-13.0 16.9
근지구력	똥물달오르기(분)	30	31	31	*****	18	1
	똥물허리하기(분)	170				11	
유연성	좌회전신소량(도)	25.3	-24	160	*****	2.6	-3.3
	좌회전신(도)					39.1	
심폐지구력	최대산소섭취량	967	800	870	*****	36.7	10.3
순환력	혈압(위/하)	85	76	78	*****	41	-7
	탄산염류(%)	194	211	211	*****	166	5.7
지방성	사이드스텔(%)	12				32	
	복장근(도)	211	211	214	*****	21	3

2단계

U-Health 프로그램으로
분석 및 진단



4단계

동영상 활용하여 운동

근력운동

● 50kg ○ 55kg □ 60kg ○ 65kg ○ 70kg ○ 75kg ○ 80kg ○ 85kg ○ 90kg ○ 95kg ○ 100kg

1주 - 1일치						
운동부위	운동종류	무게(kg)	세트수	반복횟수	휴식시간(초)	Kcal
가슴	프레스트레스-머신	26	2	10	60	3.8
등	똥물 다룬	26	2	10	60	3.8
상완	스탠딩 바벨 딥	15	2	10	60	2.2
상완	트라이앵글스 맥스텐션	10	2	10	60	1.4
어깨	올덤 프레스	23	2	10	60	3.3
대퇴	레그 익스텐션	10	2	10	60	4.3
대퇴	레그 킥	26	2	10	60	3.8
허벅지	크런치	23	2	10	60	3.3
허벅지	백릭스텐션	23	2	10	60	3.3

3단계

운동 처방

이 서비스는 심폐지구력, 악력, 순발력, 평형성, 민첩성, 유연성, 배근력 등 개인의 건강수준을 측정해 이를 분석하고 운동 처방을 해주고 있다. 또한 적절한 운동목표를 제공해 장병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 뿐 아니라, 급격한 운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도 예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군은 12년 말까지 16개 부대에 이러한 체력진단장비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고고도에서 중력의 최대 아홉 배까지를 견디며 기동을 해야 하는 조종사들의 경우 기초체력은 더욱 중요하다.

공군의 각 비행대대는 소속 조종사들이 틈나는 대로 근력과 지구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대대 내에 마련하고 조종사들의 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조종사들은 축구, 테니스, 골프 등의 운동을 통해서도 체력단련에 힘쓰고 있다. 강한 체력이 강한 정신력과 강한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강하고 튼튼한 공군

② 마음 튼튼한 공군

1. 격오지부대를 위한 기동순회 집중정신교육!

최정예 전사 정신무장 프로그램

장성급 지휘관이 전문화된 참모조직의 보좌를 받아 지휘관리하는 단급 이상 부대에 비해 고산준봉과 도서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부대의 장병들은 교육훈련, 문화, 체육활동, 복지혜택 등 여러 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신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달라지고 있다. '최정예 전사 정신무장 특별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격오지부대 집중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눈이 반짝반짝! 열공(?)중인 교육생!



공군 군악대의 격오지부대 위로 순회공연

4월부터 6월까지 60개 차수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격오지에 위치한 관제부대와 방공포대 장병들은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대적관에 관한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동 순회 집중정신교육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직접 주도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휘관이 직접 주관하다보니 장병들의 교육집중도도 높아지고, 지휘관과 장병들 간의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상호조언이 활발한 소통문화를 만든다.”

비행대대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우리 비행대대의 상관은 부대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 비행대대장이나 비행대장, 편대장들이 체크한 답변과 편대원들이 체크한 답변은 종종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난도의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비행대대에 있어 소통의 문화는 너무도 중요하다. 상호간의 신뢰와 전우애, 순간적인 정보 공유와 결심능력이 임무의 성패는 물론 비행안전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공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비행대대 조직문화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공군의 모든 비행대대는 2년에 한 번씩 조직문화 진단을 받고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상호조언이 활발한 소통 문화’를 만드는 데 있다.

군 조직에 있어 상명하복의 엄정한 기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명제. 그러나 3차원 공간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며 수많은 정보를 융합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항공작전에서는 조종사들의 직책과 계급을 초월해 현장에서의 판단을 존중하고 위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상관에게라도 시시각각 조언하고 결심을 돕는 임무현장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공군 기본교리에서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은 비행대대 운영의 핵심가치인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에 대한 리더그룹과 팔로워그룹의 인식차이를 파악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절대적인 복종보다는 소통을 통한 정보 공유와 합리적 판단이 더욱 강한 공군을 만드는 문화임을 모두가 믿기 때문이다.



5.1.(화) 오전 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에서 최초로 열린 비행대대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에서 팔로워 조종사들이 대대 소통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3) 리더그룹은 비행대대장, 편대장, 교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외의 조종사는 팔로워 그룹으로 분류한다.

3.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조종사 자긍심 함양 프로그램



예비역 조종사 출신으로 후배들에게 강의하는 최성열 (예)준장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구름 위에서 음속보다 더 빨리 비행하며 하늘을 주름잡는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못 남성들의, 그리고 수많은 소녀들의 가슴 속 로망이다. 하지만 현실 속 조종사들의 삶이 그리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훈련, 고가속도 기동으로 특하면 터지는 실핏줄들, 밤낮없이 찾아오는 비상 대기 근무, 이따금씩 들려오는 동료 조종사들의 사고 소식, 거듭되는 이사와 가족들의 불안정한 생활로 조종사들의 스트레스는 어느 직업군보다도 높은 듯하다.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는 임무특성도 이들의 스트레스에 큰 몫을 차지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집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긴장감은 같은 시각 실무장을 장착하고 밤하늘을 가르며 출격하는 조종사들의 긴장감에 비할 바 못될 것이다.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체험활동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돌보미 지원

삶이 그러하다보니 처음 조종사 wings 달 때의 포부와 각오를 한결같이 유지하기란 그리 녹록치 않다. 공군이 대위·소령급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종사 자긍심 함양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부가 함께 입과한다는 것,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지원된다. 조종사 부부들은 부대에서의 일상을 떠나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서 1박 2일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항공독립운동과 공군 창설에 관한 스토리, 원로 조종사와의 대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행복한 가정에 관한 세미나, 맞춤형 경제교육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자신 스스로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대한민국과 공군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R2B:리턴투베이스

서울도심상공을 가로지르는 짜릿한 고공액션!
〈R2B:리턴투베이스〉 8월 개봉 확정!

고공액션드라마 〈R2B: 리턴투베이스〉가 8월로 개봉을 확정지었다.

‘R2B:리턴투베이스’는 ‘무사귀환’을 뜻하는 군 용어 “RETURN TO BASE”로서, 실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작전명이기도 하다. 〈R2B:리턴투베이스〉는 이러한 영화의 비공식 작전명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비상(飛上): 태양가까이〉에서 〈R2B:리턴투베이스〉로 제목을 새롭게 변경했다.

대한민국 공군의 지원, 〈인셉션〉〈다크나이트〉 등을 찍은 할리우드 항공전문스텝의 참여로 화제를 모아온 이 작품은 이제껏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울도심상공에서의 화려한 공중 액션씬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정지훈, 신세경을 비롯, 유준상, 김성수, 이하나, 이종석, 정석원 등의 눈부신 캐스팅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현재 CG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반작업에 몰두하며 막바지 작업 중인 〈R2B:리턴투베이스〉는 오는 8월 개봉, 시원하고 짜릿한 고공액션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감독: 김동원 / 주연: 정지훈, 신세경, 유준상, 김성수, 이하나, 이종석, 정석원

MAX 도발하면 공군력으로 제압한다! THUNDER!

최대규모의 한·미 공군연합훈련, Max Thunder

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은 지난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연합 공중전투훈련인 '12-1차 Max Thunder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Max Thunder 훈련은 한·미 공군이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연합훈련으로, 美 공군이 주도하여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RED FLAG 훈련을 벤치마킹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작전사령부 주도하에 제1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됐으며, 전쟁초기 상황을 가정해 훈련 시나리오를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대의 연합 공중전력이 참가했습니다.

△ 한측(총 38대) : F-15K, KF-16, F-4E, F-5E/F, C-130/CN-235, HH-32/60
△ 미측(총 22대) : F-16, A-10, AWACS(공중경보통제기), KC-135(공중급유기)



◎ F-15K, KF-16, F-4E로 구성된 대규모 공격편대군이 서해상에서 진행된 적 도발 원점에 대한 정밀 폭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무사히 기지로 귀환하고 있다.



훈련에 참가하는 F-15K 조종사가 Para-Suit를 착용하고 있다.



출격전 정비사와 대화를 나누는 조종사

청군 vs 홍군, 실전처럼 격돌하다!

Max Thunder 훈련은 참가전력들을 아군(Blue Air, 청군)과 적군(Red Air, 홍군)으로 나누어 실전을 방불케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임무계획부터 브리핑 및 실제 임무까지 청군과 홍군이 서로 철저히 분리된 상태로 훈련이 진행됐으며, 아군인 청군은 한·미 연합공군이, 적군인 홍군은 공군 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가 전담했습니다.

적 도발 원점 정밀타격훈련 및 공중급유훈련 실시

한·미 연합공군은 훈련기간 동안 항공차단¹⁾, 방어제공²⁾ 등 공중 주요 작전에 대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확인했으며, 전투탐색구조, 조종사 도피탈출, 공중재보급³⁾ 훈련 등 지원작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특히, 항공차단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과 긴급항공차단작전에서는 식별된 적의 도발원점에 대해 정밀무장을 이용하여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어제공작전과 연계한 조종사 공중급유 자격유지⁴⁾ 및 교관승급⁵⁾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실제 공중작전 임무 중에 공중급유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훈련을 통해 5명의 조종사가 공중급유 교관으로 승급했습니다.



○ 훈련에 참가하는 韓 공군 F-15K 전투기들이 1전투비행단에 주기에 있다.



F-5F에 탑승해 가상적군을 지휘한 박신규 작전사령관

해군함정, 특전사 요원도 일부 참가

또한,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항공기 폭격유도훈련⁶⁾ 및 탐색 구조훈련에 특전사를 최초로 참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군 DDH-2/3급 구축함을 함대공 위협대응훈련⁷⁾을 위해 가상 적 함정 역할로 투입시켰습니다. 그 밖에 작전 중인 특전사팀에게는 수송기를 이용해 실제 보급품을 투하하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전시 출격할 항공기가 피격 또는 기체 이상으로 적진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한 조종사 생존훈련 및 탐색구조훈련에는 한측과 미측의 베테랑 생존교관들을 특전사와 함께 참여시켜 훈련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AF**



공중급유훈련중인 F-15K

- 주 1) 적의 군사잠재력이 우군의 지해상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를 교란, 지연, 파괴하거나 우군의 지상군에 대하여 단기간에 효력발휘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적을 공격하여 적 전력의 증원, 재보급 및 기동성을 제한함으로써 전투지역 내의 적을 고립케 하는 항공작전
- 2) 우군 영공을 침투하거나 우군에 대하여 공격을 시도하는 적 공군력을 탐지하여 격추시키는 작전
- 3) 항공기에서 통상 지상병참선이나 비행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목표지역에 군수물자를 재보급하기 위해 물자를 투하함.
- 4) 공중급유 최초 자격은 4회의 공중급유훈련으로 부여받게 되며 반기 1회 이상 훈련시 자격유지가 됨.
- 5) 공중급유 자격자가 공중급유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1회의 훈련이 필요함.
- 6) 중심지역에 침투한 특전사로부터 적 표적 정보에 대해 실시간 무선교신을 통해 항공력을 이용하여 폭격하는 작전
- 7) 해상 침투시 적 함정 레이더 방공망을 표현해 함대공 레이더 미사일 회피기동을 실시하기 위한.

『항공우주군사발전연구』誌 제8호 원고모집 안내

공군연구분석평가단에서는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한 논문과 연구단의 연구 실적 등 연구결과를 전파하기 위해 『항공우주군사발전연구』誌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투고자격 » 제한 없음

원고모집 분야 » - 국제관계, 전략환경 평가, 항공우주력 이론 및 신전쟁개념
- 우주전력 등 최신 무기체계와 각국 군 구조 및 전력
- 합동, 공군 교리 및 타국군 교리

논제접수 » - 제출기한 : 2012. 7. 30
- 제출내용 : A4 1~2매
» 제목, 연구목적, 주요 내용 및 구성(장/절 편성), 투고자 인적사항/경력 등
» 채택논제 개별통지('12. 8. 20)

원고작성 양식 » - A4용지 20매 이내
* 글자크기 12, 신명조체, 줄간격 160
(여백 : 위쪽 20, 아래쪽·머리말·꼬리말 15, 좌·우 30)
- 핵심내용을 A4용지 1장으로 필히 요약 첨부
- 원고에 목차, 각주 및 참고문헌 기입
- 그림 및 도표는 제판 원고로 사용 가능한 원본으로 제출
* 채택원고에 한함

기 타 » - 응모작품은 타지에 발표하지 않은 창작논문 또는 번역문으로서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시 ()에 한자, 영어 사용 가능
- 번역문일 경우 외국어 원문(原文) 필히 동봉
- 원고송부 시는 소속, 계급, 성명 및 연락처 명기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기념품 지급
※ 본 연구지는 학술·연구실적 인사기록 승인 간행물임.

원고마감 » 2012. 10. 31

접수처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7호
연구분석평가단 교리발전처
☎ : 02)506-5814, 042)552-5814, E-mail : bhson@af.mil

공군연구분석평가단

2013학년도(제65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입학원서 | 접수기간 : 2012년 6월 25일(월)~7월 6일(금)

원서접수 | 공군사관학교 www.afa.ac.kr
유웨이 www.uwayapply.com

1차시험 | 시험일 : 2012년 7월 29일(일)
과 목 : 언어(듣기 제외), 수리(인문·자연 구분),
외국어(듣기, 말하기 제외)

2차시험 | 시험일 : 2012년 9월 3일(월)~9월 26일(수)
과 목 :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최종선발 | 기 준 : 수능(700점), 학생부(100점), 면접(70점),
체력검정(30점)
합격자발표 : 2012년 11월 30일(금)

주 요	시력 : 조종분야 나안 0.5 이상, 정책분야 교정 0.7 이상
신체기준	신장 : 162.5cm~195cm(여자 정책분야 160cm~195cm)

공군사관학교 입시문의
043) 290-5504, 297-9156
www.afa.ac.kr



전투비행단 대비태세 점검

참모총장은 5월 중 11, 17, 19,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임무수행 중인 장병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최정예 전투비행단들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참모총장은 임무요원들에게 “적 불시 도발의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해 출격 명령 시 완벽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강조하며, “적의 도발에 반드시 응징한다는 각오로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12년도 태극연습 작전지휘

참모총장은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12 태극연습시 작전사령부에 위치해 연습전반을 작전지휘했다. 이번 연습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및 작전지휘 능력을 숙달하고 보안요소를 식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사령관 취임식 주관

참모총장은 5월 7일 교육사령관 취임식을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이자리에서 “교육사령부는 공군인이 되는 첫 출발점이자 공군의 모든이가 거쳐 가는 관문”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인’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AIR FORCE MONTHLY

2012. 06. NEWS

제34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챌린지 2012 Space Challenge 2012

푸른 창공을 향해 꿈과 희망을 날린다!



공군은 지난 5월 19일,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과학 행사인 '제34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스페이스 챌린지) 2012'를 공군사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전국 15개 지역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으로 본선대회에 진출한 2,000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각 부문(글라이더, 고무동력기, 물로켓, 동력비행)별로 실력을 겨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물로켓 단체전이 신설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경기장별 대형 LED 전광판 및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 사진공모전, QR코드 미션 수행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11전비, 백혈병 어린이의 F-15K 탑승 소원 들어줘
오늘은 나도 F-15K 조종사!**



5월 23일, 제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주인공은 여섯 살 이강일 어린이. 2011년 1월 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 반 가까이 투병해 온 이 군은 평소 공군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 종류를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전투기 마니아'인 이 군의 소원은 바로 대한민국 공군 최강의 전투기 F-15K의 조종석에 앉아 보는 것이었다.

이강일 어린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한국 메이크-어-위시(Make-A-Wish) 재단¹⁾과 공군 11전비 102대대가 나섰다. 그러나 F-15K 조종석 탑승체험은 이 군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지상에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다. 이 군이 탄 F-15K 전투기는 비행이나 고난도 기동 대신 Tug car(전투기 전용 견인차량)를 이용해 활주로 위를 달렸다.

체험을 마친 후 102대대 대대장 박승철 중령은 이 군에게 명예대원증을 수여하고, 장병들의 응원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전달하며 "F-15K의 강력한 힘을 받아 병마와 싸워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길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공군,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린 6 시그마 합의서' 체결
'고효율 공군' Star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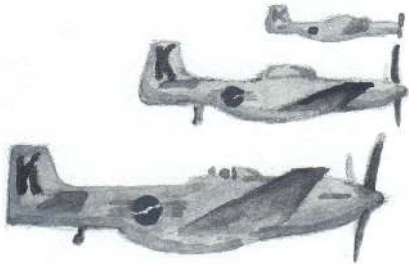


공군은 5월 15일,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린 6 시그마 합의서'를 체결하고,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경남 사천 KAI 사옥에서 열린 이날 합의서 체결식에는 공군 군수참모부장과 김홍경 KAI 대표이사를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KAI는 공군에 린 6 시그마 전문인력인 Green Belt(과제수행팀원) 양성교육(매년 160명)과 최고 관리자 과정(Champion) 운영을 지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린 6 시그마 과제지도 및 심사, 과제관리/관련자료 종합관리 프로그램인 PTS(Project Tracking System) 지원도 맡게 된다. KAI는 교류협력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식기부 형태로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1) 2002년 설립된 기관으로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소원을 이뤄줌으로써 삶의 희망과 용기를 회복시켜주고 병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소원성취 기관을 펼치고 있다.

창공의 영웅, 이근석 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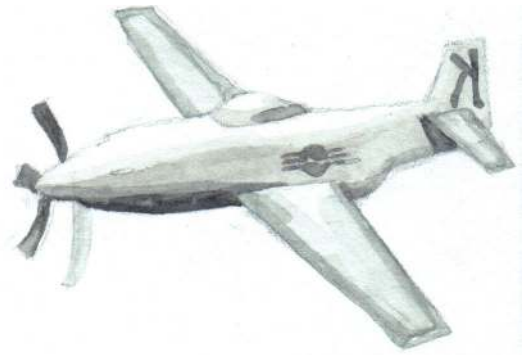


6·25전쟁 초창기, 연습기와 연락기만을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의 도움으로 F-51 전투기 열 대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의도기지 비행단장이었던 이근석 대령은 아홉 명의 전투조종사와 함께 일본에 가서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F-51 전투기를 이끌고 왔습니다.

1950년 7월 2일, 조국 상공으로 돌아온 그는 설 거름도 없이 편대를 지휘하며 출격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조금한 출격을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적들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우수한 전투기를 갖추게 되었는데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놈들을 쳐부수겠다!”



마침내 경기도 평택 상공에서 우리 전투기의 필사적인 출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편대를 이끌고 창공을 누비던 이근석 대령의 눈 아래로 남하해 오는 북한군 무리가 보였습니다. 조종간을 왼 손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적 발견! 기총공격 실시! 나를 따르라!” 우렁찬 외침과 함께 기총의 방아쇠를 힘껏 잡아당기자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두 줄기의 기관총탄이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침착하게 공격하라! 지금 우리가 퍼붓는 총탄 하나하나에 조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공습이 성공리에 끝나자 이번에는 20여 대가 넘는 적의 탱크부대가 보였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부수리라는 불타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며 그는 조종간을 앞당겨 적진으로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북한군의 실 새 없는 탄환 세례에도 굴하지 않고, 이근석 대령은 적 탱크에 거침없는 육탄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종사들은 저공까지 급강하한 뒤 적의 공격을 피해 탱크를 백발백중시키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공격을 마치는 순간, 적의 포탄이 날아와 이근석 대령의 전투기 엔진을 강타했고 순식간에 기체는 뜨거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베테랑 조종사였던 그마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전우들이여, 조국의 하늘을 부탁한다”는 한마디 말만 남긴 채 끝내 애기(愛機)와 함께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6·25 최초의 순국 조종사인 이근석 대령(1917~1950). 그는 대한민국 공군의 보라매들이 고개 숙여 추모하는 진정한 하늘의 영웅입니다.

2012 공군항공우주캠프 ROKAF AERO SPACE CAMP



기간 : 2012. 7. 24(화) ~ 7. 27(금)

장소 :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등

대상 : 중(2~3학년), 고등학생 80명

주요프로그램 : 지상·수중 생존훈련, 비행단 견학,
사관생도·조종사와의 만남, 항공기 체험탑승, 레크리에이션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소년단 담당자(02-953-7543) 또는
“공군항공우주캠프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aircamp>) 참조

※ 단원 가입 문의 : Tel. 02-953-7543 / Fax. 02-953-7545 / www.yfk.or.kr

마다가스카 3

* Hollywood English

지금도 꿈은 이루어진다

* Air-Supply

동백꽃의 여인, 라 트라비아타

* 인생은 아름다워

6월의 문화행사

* Preview

못찾겠다! 피꼬리

* Art in Everyday

36.5

Culture

They Have One Shot to Get Back Home





스티븐 스피버그 군단의 새 애니메이션

'일급 현상범. 위장취업. 불세출의 팜프파탈. 태양의 서커스. 피보다 진한 우정. 금의환향.....!' 이 모든 것의 조합이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 3>입니다. 미국 포스터는 '유럽의 일급 현상범(Europe's Most Wanted)!'이라는 부제를, 국내에선 '이번엔 서커스다!'라는 부제를 단 <마다가스카 3>은 그동안 <쿵푸 팬더 Kung Fu Panda> 시리즈, <슈렉 Shrek> 시리즈, <장화신은 고양이 Puss in Boots>, <드래곤 길들이기 How to Train Your Dragon> 등을 제작한 드림웍스의 신작입니다.

이번엔 유럽 찍고 미국행이다!

미국 센트럴파크 동물원을 도망친(1편) 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 불시착했던(2편) 동물 친구들이 3편에서도 다른 세계로 떠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곳으로! 먼저, 몬테카를로! 그곳은 펭귄들이 일확천금을 따겠다며 잠입한 카지노입니다. 그들이 돈을 따서 돌아와 미국으로 데려가주길 고대하던 동물 친구들, 즉 사자(알렉스), 얼룩말(마티), 기린(멜먼), 하마(글로리아)는 더 이상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순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헤엄쳐 몬테카를로에 잠입합니다. 펭귄들과의 조우는 순조롭게 성사될까요? 유해동물(?)을 발견한 경찰은 동물통제소의 캡틴 듀브아에게 무전을 때립니다.

최대의 새 팜프파탈을 맞이하라!

위기에 빠진 동물 친구들은 '짱구 굴리기의 대마왕'인 펭귄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합니다. 도주용 차는 펭귄들이 카지노에서 딴 거금으로 산 초강력 슈퍼카! 그때부터 캡틴 듀브아와 동물 친구들의 cat-and-mouse, 즉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또 한 명의 걸출한 팜프파탈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목소리 연기자는 <파고 Fargo>에서 마지 군더슨 경찰 배역을 열연하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프란시스 맥도맨드입니다. 와우! 짙은 화장, 독기가 서린 눈매, 간단명료하면서도 목소리에 각이 잡힌 중저음의 말투, 그리고 찰거머리처럼 집요한 원초적 수색 본능! 또 하나 무척 흥미로운 점은 수색할 때면 사냥개처럼 쿵쿵대고, 걸을 땀 사지를 땅에 붙인 채 완거미처럼 움직인다는 점. 참, 그녀의 취미를 공개 안 할 수 없겠군요. 왜 그녀가 그토록 끈질기게 동물 친구들, 특히 사자를 잡으려고 하는지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취미는 동물 박제 수집입니다.



서커스단에 위장취업하다!

빌딩 옥상을 중형무진 질주하는 <트루 라이즈 True Lies>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처럼, 총탄을 피해 자유자재로 허리를 꺾는 <매트릭스 The Matrix>의 요원처럼 무시무시한 카리스마와 포스로 추격해오는 캡틴 듀브아를 따돌리기 위해 알렉스 일행은 서커스단에 위장취업합니다. 아니, 카지노에서 딴 돈으로 서커스단을 덜컥 사버립니다. 아뵘싸, 문제는 그것이 천태만상, 오합지졸, 개념제로 서커스단이라는 점! '박힌 돌'인 호랑이, 재규어, 바다사자들과 '굴러온 돌'인 알렉스 일행들은 눈만 뜨면 부딪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도 대장 알렉스는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서커스계의 거물 스폰서에게 눈도장을 받아 미국에 돌아가는 전략입니다. 과연 알렉스 일행과 '박힌 돌' 친구들은 성공적인 쇼를 해낼 수 있을까요? 알렉스가 구호 외치듯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서커스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Circus stick together)!"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한 '태양의 서커스'

알렉스는 조직 개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술과 기교 중심의 전통적 서커스로는 이제 인기를 끌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알렉스는 서커스단에서 인간을 도망 빼버리고 100% 동물 중심 신개념 쇼를 계획합니다. 세계적인 공연단인 '태양의 서커스(Circus of the Sun)'가 동물 없이 인간 중심으로 쇼를 펼치는 것을 뒤집은 창조적 역발상이지요. 로마, 바티칸 시티를 거쳐 드디어 거물 스폰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이 시작됩니다. 성공할까요? 캡틴 듀브아가 끼어드는군요. 미국행 보증수표가 휴지조각이 되느냐, 아니면 당첨확률 100%인 로또가 되느냐의 기로에 놓인 알렉스 일행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뉴욕의 집에 돌아가려면 모두를 '뺑-터지게 만들' 일을 내야지만 해(In order to get home, we will come up with an act that will blow everyone away)!" 그리곤 창의적 성과를 창출할 회심의 히든카드를 꺼내놓게 되는데...!

1편만한 2편 없다? 1편보다 센 3탄이 온다!

과연 시리즈 3탄은 어떻게 나올까,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캐릭터가 더 화려해졌습니다. 특히 캡틴 듀브아의 절대막강, 초절정 존재감. 추격전을 탄, 박진감 넘치는 전개방식의 콘셉트에 어울리게 속도가 더 빨라졌으며, 이에는 업그레이드된 컴퓨터그래픽의 기술도 큰 몫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슬픈 눈을 가진 서커스 베어 '곰순이'와 까불이 여우원숭이 '킹 줄리엔'의 종량을 초월한 로맨스 설정을 포함해 전편들에 비해 스토리가 한층 더 깊고 탄탄해져서, 서사적 힘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휘황찬란한 서커스 공연의 흥을 돋우어주는 감동적이고, 힘차며, 경쾌한 뮤지컬 장면들은 엔터테인먼트의 격과 질을 높여놓았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을 결집하는 힘은 단연 곳곳에 배치된, 포복절도할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저는 벌써 4탄이 기다려집니다. **AF**



동백꽃의 여인

- 라 트라비아타 -



사랑하는 연인들의 애뜻한 마음과 그 순수함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도 있는 것 같다. 150년 전쯤, 프랑스 파리에 '비올레타'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다. 프랑스 상류층 남성들을 위한 코르티잔이었던 비올레타는 가녀린 몸매에 뽀뽀 넘치는 미모를 소유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생활했던 비올레타는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그럼에도 프로방스에서 온 귀족 청년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게 된다.

당대 최고의 코르티잔과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의 첫 만남... 그것은 대면대면하기만 했다. 사실 프랑스 최고의 남성들을 상대하던 비올레타에게 젊은 청년 알프레도는 애송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솟기도 없고 수줍어서 말도 못 꺼내는 이 젊은이가 비올레타의 눈에 어떻게 비쳤겠는가... 하지만 비올레타가 병을 앓는 1년 동안 알프레도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비올레타의 마음속에는 온기가 퍼졌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보였던 남자는 없었다. 그 누구도 진실된 사랑을 말하는 남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올레타를 만난 알프레도는 어렵사리 '사랑한다'는 말을 꺼낸다. 하지만 이제껏 단 한 순간도 사랑을 믿지 못했던 비올레타는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비올레타에게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색하게 만난 두 사람이 헤어지려는 순간, 도도한 비올레타가 자신이 꽃고 있던 동백꽃을 건넨다. 그리고는 "이 꽃을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말한다. 당황해 하는 알프레도... 예상치 못했던 비올레타의 선물에 알프레도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기대하지 못했던 비올레타의 제안에 어리숙하게 "언제요?"라고 물어보는 알프레도...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에게 "그 꽃이 시들거든"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비올레타에게 건네받은 동백꽃은 이미 시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어색하게 만난 두 사람은 오래지 않아 연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에 경계심을 놓은 비올레타는 파리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 하고, 파리 근교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들어가 알프레도와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시골집에서 단둘이 지내는 단촐한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비올레타는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던 장신구며 귀중품을 모두 팔아, 시골에서의 삶을 유지했다. 그녀에게는 알프레도 이외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이 사실을 알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코르티잔이 자신의 귀한 아들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제르몽이 불현듯 이 시골집을 찾은 것이다. 알프레도가 파리에 잠깐 다니러 간 사이, 시골집을 찾은 제르몽은 비올레타를 붙잡고 이야기 한다. 알프레도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딸의 혼사가 성사될 것이라는 것이다. 딸의 행복이 곧 비올레타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제르몽의 말에, 비올레타는 슬픔을 감추지 못한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신의 행복을 의심하면서도 더없는 기쁨에 행복해 했던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의 집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한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얼마간 떨어져 있으면 될까요..." 용기 내어 물어보지만, 비올레타의 말에 제르몽은 단호하게 대답한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제르몽은 비올레타가 알프레도의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는 것이다. 알프레도를 사랑하는 비올레타, 그리고 비올레타를 사랑하는 알프레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갈등은 연인의 주변에서 시작된 것이다.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비올레타는 절망한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이제 겨우 행복의 단꿈에 젖은 비올레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비올레타는 마음을 다잡고 제르몽에게 말한다. "어려쁜 따님에게 전해주세요. 불쌍한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비올레타는 그렇게 슬픔을 뒤로 한 채, 시골집을 떠나야 했다. 알프레도에게 이별을 고하지 못하고 파리로 돌아온 비올레타... 그녀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했다.

뒤늦게 시골집으로 돌아온 알프레도... 그는 비올레타가 옛 생활을 잊지 못해 파리로 돌아갔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비올레타가 제르몽을 만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오해한 알프레도는 처절한 배신감으로 비올레타가 있는 파리의 사교계에 찾아온다. 비올레타는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사교계에 다시 등장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쓸쓸한 아픔이 감춰져 있었다. 비올레타를 만나겠다고 찾아온 알프레도... 그는 다른 남자와 있는 비올레타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불타올랐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비올레타를 비난한다. "여기 이 여자를 아시오? 이 여자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소.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소. 이제 보시오. 나는 이 여자에게 그 빛을 갚겠소.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화를 내며, 비올레타에게 돈다발을 집어 던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소리치는 알프레도는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있을까... 알프레도의 격한 비난에도 그 모든 아픔을 속으로 감내하는 비올레타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무대는 비올레타의 침실로 옮겨진다. 그렇게 비참한 이별을 하고 병이 더욱 깊어진 비올레타는 몇 시간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 몇 푼 남지 않은 재산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알프레도를 보는 것이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제르몽... 그는 비올레타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고, 알프레도와 찾아오겠다는 말을 전했다. 연인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잡고 있는 비올레타... 그녀는 몇 시간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에 알프레도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를 그토록 미워하던 제르몽도 그녀를 머느리로 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파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알프레도의 말에 비올레타는 더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말에 선택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오랜 병마가 주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려는 순간...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 같은 힘이 솟는 순간... 비올레타는 의식을 잃고 만다. '길 잃은 버려진 여인'이라는 제목 '라 트라비 아타' 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진 여인, 비올레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의 기쁨 속에서... AF





이용백_Angel Soldier

못찾겠다! 꼬꼬리

무심코 시계를 내려다보다 깜짝 놀란다. 벌써 이렇게 해가 길어졌다... 낮이면 땀을 뺄뺄 흘리면서도 기나긴 겨울에 익숙해져버린 감각은 계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부터 아이들의 재재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자주 들린다. 해가 길어지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계절, 집안에만 갇혀 있던 아이들이 죄다 골목으로 쏟아져 나오는 계절이다. 요즘은 골목이 많이 사라져서 집에서 뛰쳐나와 봐야 역시 시멘트 건물 사이에, 쉼표 하나 찍히듯 마련된 작은 공원뿐이지만, 또래와 어울릴 수 있다면 가릴 게 무엇이랴. 그런데다 아이들이 노는 모양을 가만히 지켜보면, 놀이 공간만 달라졌을 뿐 노는 모양새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하고, 술래가 눈을 감고 열을 세는 동안 쥐도 새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리는 아이들. 여러 아이들이 모여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아이를 찾아내는 '숨바꼭질'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술래잡기', '술래놀이'라고도 불리는 이 놀이를 떠올리면, 아직도 숨어 있는 아이를 위해 소리 높여 외치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범 장군 나간다."와 아이들이 너무 감쪽같이 숨어서 찾지 못했을 때 술래가 외치는 "못 찾겠다 꼬꼬리, 한 발 들고 나와라."가 마치 대구를 이루듯 머릿속에서 맴돌곤 한다. 술래의 '못 찾겠다.'는 항복을 받아낸 후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보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에서 나타나곤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술래잡기의 고수는 '숨을 만한 곳'이라는 공간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는, 일상을 자신만의 눈으로 해석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상의 틈을 찾아내는 현대미술작가들의 눈과도 닮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가고 있는 미디어 작가 이용백. 그는 후배와의 술자리에서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음 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며 투덜대는 후배의 말을 듣는 순간, 군복을 꽃무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엔젤 솔저(Angel Soldier)'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의 '작품 엔젤 솔저'는 보통 미술관 한쪽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스크린에 보이는데 그 앞에 서면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온다. 눈앞은 그야말로 울긋불긋 꽃 대결. 알록달록한 꽃들의

향연에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서 뭔가가 설핏 움직인다. '뭐였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처음엔 눈을 의심하다가 다음엔 잠시 흩어져 있던 정신을 모으고 두 눈을 크게 뜬 채 이번에는 뚫어져라, 화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찾았다!' 그저 꽃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안에는 꽃 위장술을 펴고 있는 군인이 행군 중이다. 한 마디로 꽃무늬 위장복을 입은 군인이 꽃으로 뒤덮인 총을 들고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꽃무늬 군복이라, 꽃 대궐 안을 눈에 띄지 않고 거닐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군인하면 전쟁을 떠올리고, 꽃 하면 평화를 떠올리는 우리이고 보면 그 전쟁과 평화의 공존은 아무래도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이홍백 작가는 이 작품을 크게 프린트해서 사진 작품으로 전시하기도 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사진 안에서 위장된 군인들을 찾아내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야말로 작품 앞에 서서 '못 찾겠다, 피꼬리'를 외쳐야 할 지경이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다양한 의미로 풀어볼 수 있다. 보이는 그대로 휴전 중이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리의 분단현실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우아해 보이려고 하려는 일상의 위장이기도 하며, 더 크게는 평화로 위장한 채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크고 작은 부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저것 다 머리 아프다고? 그렇다면 어느 인터뷰에서인가 작가가 밝힌 유쾌한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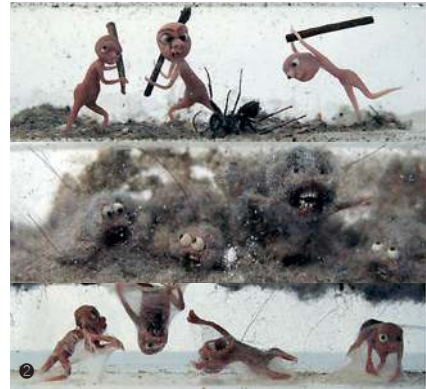
"국군의 날 행사에 군인들이 멋지게 가두행진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한 100명 정도가 총 대신 꽃다발을 들고 꽃무늬 군복을 입고 가두 행진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는 예술의 발칙한 상상이다.

"지금까지 제 작품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술계의 차세대 리더라고 불리는 함진 작가는 전시장 출구 앞에 이런 인사를 붙여놓은 적이 있다. 그 문구를 보며 피식 웃음 짓는 관람객들의 손에는 저마다 하나씩의 돋보기. 너무 오래 구부리고 있어서 굳은 무릎을 펴느라 다리를 두드리고 다리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에 들어섰을 때는 새하얀 미술관 벽면이 나를 맞을 뿐이어서 적잖이 당황도 했다. 그때 다가오는 도우미의 손에는 돋보기가 들려 있었고 그제야 뭔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듯 미술관 구석구석에 흩어져 구부리고 있는 다른 관람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손가락 한 마디도 뽀얗게 아주 작은 미니어처 조각을 만들어낸다. 조각이니 만큼 눈에 잘 띄도록 번듯한 조각대 위에 올려 조명을 비춰놓을 만도 한데,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벽면이나 모서리의 틈에 교묘하게 숨겨 놓았다. 미술관 바닥을 기다시피 몸을 낮춰 돋보기를 들이대야만 그 조각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의 조각이 다비드 상이나 비너스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니다. 쌀알을 징검다리 삼아 조심스레 걷고 있거나, 누군가 씹다 붙여 놓은 껌 조각을 침대 삼아 누워 있거나 제 키보다 큰 성냥개비를 장대처럼 들고 서있는 그들은 그냥 초등학교 아이가 낙서처럼 그린 형상처럼 허술하다. 그 뿐인가. 그 조각을 만든 재료 역시 청동이나 대리석이 아닌 합성 점토와 진공청소기에서 나온 쓰레기와 먼지, 죽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만물상. 다만 그렇게 꾸며져 있는 그의 작품들을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펼쳐내는 풍경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을 법한 가지각색의 인간사를 풍자적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맛벌이를 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혼자 지내야 했던 작가에게 찰흙이나 점토로 뭔가 형상을 빚어내는 작업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놀이였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는 '못 찾겠다, 피꼬리'를 외치며 누군가 나타나주기를 바라는 대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며 자신이 걱정해줄 수 있는 대상을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어릴 적 놀이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작품으로 만들어낸 함진. 그의 작고 작은 세계 역시 우리가 있고 사는 일상을 돌아보게 하고, 아무리 큰소리 치고 땡땡거려도 어쩌면 이 작고 작은 세계의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전해준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내가 애써 외면해온 곳, 그런 곳에도 누군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못 찾겠다고 소리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가하면 미술관에서 하는 숨바꼭질 놀이의 고수는 따로 있다. 일명 '투명한 위장' 시리즈의 홍장오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설치 작업으로 우리의 일상을 전혀 다른 의미로 풀어내온 그는 이번에는 가리고 싶은 것, 구분하고 싶은 공간을 투명한 비닐커튼으로 위장함으로써 그 대상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아니 주목하게 만든다. '볼 테면 보라.' '찾을 테면 찾아봐라.' 라는 배포 큰 숨바꼭질 고수. 그의 투명한 위장은 늘 거기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투명한 위장으로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 번 눈길을 놓이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장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위장. Camouflage. 동물들의 보호색이나 군인들의 위장, 위장용품을 의미하는 이 말은 요즘 패션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다. Camouflage 프린트가 여러 패셔니스타들의 완소 아이템인 까닭. 원래 풀이 많은 야전에서 몸을 숨기기 위해 쓰이던 무늬가 이제는 튀어야만 살 수 있는 무대 위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 위장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AF**



① 함진
 ② 함진, Underneath It, 2007
 ③ 함진 벽 타고 가는 인형, 쌀, 점토, 솜
 ④ 홍장오, Transparent Camouflage

Air-Supply 글. 강명석 | 대중문화평론가, 10asia 편집장



A JOSS WHEDON FILM
AVENGERS

DON CHEADLE · ROBERT DOWNEY JR. · CHRIS EVANS · NATHAN FILLION · ASHLEY GREENE
CHRIS HEMSWORTH · SCARLETT JOHANSSON · JEREMY RENNER WITH EDWARD NORTON AND SAMUEL L. JACKSON

지금도 **꿈**은 이루어진다

혹시 요즘 휴가나 외박을 앞두고 있는 군인이 있다면, 반드시 <어벤져스>를 보기 바란다. 이 영화를 봐야 휴가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가 통할 것이고, 부대에 돌아와서는 자랑하기 좋으니 말이다. 불과 2주 만에 400만 관객을 넘겼고, 전 세계적으로 벌써 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흥행을 기록중인 <어벤져스>는 문자 그대로 '끝내주는' 작품이다.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이언맨, 헐크 등의 슈퍼 히어로가 모두 모인다는 설정은 시큰둥할 수도 있다. 그나마 아이언맨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지만, 다른 슈퍼 히어로들의 작품들은 언제 개봉했는지도 모르게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어벤져스>는 그들 넷이 뉴욕시 전체를 두고 외계인들과 싸우면서 엄청난 스펙터클을 보여준다. 캡틴 아메리카가 근접전으로 외계인을 때려 눕히고, 아이언맨과 토르가 하늘을 날다니며, 헐크는 눈에 보이는대로 모든 것을 때려 부순다. 이 장면 전에는 헐크와 토르의 엄청난 대결도 있다. <어벤져스>의 설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신나게 볼 수 있고, 중간에 들어간 유머도 재치 있다.

그러나, <어벤져스>의 진짜 매력은 이 영화가 남자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다. <어벤져스>의 슈퍼 히어로는 모두 남자가 되고 싶은 모습들을 자극한다. 스스로를 “독설가, 플레이보이, 역만장자”라고 말하는 아이언맨은 그 자체로 남자들의 꿈이다. 캡틴 아메리카는 정의롭고 반듯한 슈퍼 히어로인 동시에, 과거에는 왜소한 체격으로 아무에게나 맞고 다녔던 과거가 있다. 분노하기 전에는 순한 얼굴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 괴물로 변하는 헐크는 갑갑한 일들이 많은 남자라면 언젠가 한 번쯤 돼보고 싶은 모습이다. 또한 토르는 어떤 상황에서든 용감하게 나서는 동시에, 하늘을 날고 인간 이상의 초능력을 보여주는 외계 종족이다. <어벤져스>의 네 캐릭터는 어린 시절부터 남성들이 꿈꾸던 몇 가지 모습들을 각각의 캐릭터에 담아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어벤져스>가 사실상 누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영화인 것은 중요하다. <어벤져스>에서 리더는 계속 바뀐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닉 퓨리가 리더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뒤에 나서서 일을 꾸밀 뿐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는 리더라기보다는 운동팀의 감독이나 학교의 교사 같은 느낌이다. 또한 재력과 두뇌라면 아이언맨이 최고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독설가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가졌다. 헐크는 분노하면 누구보다 강하지만 그 힘을 제어할 이성이 없고, 토르는 지구의 상황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화합하기 어렵다. 캡틴 아메리카는 나머지 셋에 비해 힘도 약하고, 냉동인간 상태로 수십년을 잠들어 있었기에 리더가 되기 어렵다. 관객이라면 누가 리더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될까.

<어벤져스>는 이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한다. <어벤져스>의 리더는 결국 그들을 하나로 묶어 팀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상황을 극복한다. 중요한 건 능력 이전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은 슈퍼 히어로물의 흔한 특징이다. 그러나 <어벤져스>는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들을 설 새 없이 부딪히게 만들면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한데 화합하도록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흔한 전개지만, 그만큼 남자들이 생각하는 우정과 화합, 그리고 단체 생활에 대한 꿈이 <어벤져스>에 들어있다.

그래서 <어벤져스>는 마치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영화로 재현해주는 작품처럼 보인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슈퍼맨처럼 날 수 있을 것 같았고, 헐크처럼 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또한 정의의 사도가 돼 세상을 지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만만치 않은 현실이 다가온다. 그때 <어벤져스>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모여 힘과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다. 물론 순진해 보일 만큼 단순한 메시지다.

그러나 <어벤져스>야말로 그런 꿈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어벤져스>의 슈퍼 히어로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연재된 만화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작품의 영화화는 꾸준히 추진됐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만화의 이야기를 옮기기에 기술과 제작비 모두 무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벤져스>의 팬들은 늘 영화화를 바랐고, 이 캐릭터들의 판권을 가진 만화사인 마블 코믹스는 아예 직접 영화화에 나섰다. 그들은 10여년에 걸쳐 <아이언맨>, <토르>, <퍼스트 어벤져>, <헐크>의 영화화를 기획했고, 4년 전부터 차근차근 각자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을 발표했다. 이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뒤에야 <어벤져스>가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어벤져스>의 감독 조스 위든은 유명한 슈퍼 히어로 만화의 팬이다. 슈퍼 히어로 만화의 서문을 썼을 정도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마음껏 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 안에서 최고의 결과를 보여줬다. 물론 현실은 슈퍼 히어로처럼 마음먹은 대로 똑막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꿈을 끈다면,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들은 종종 이뤄지곤 한다. 슈퍼 히어로가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그들이 영화관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하늘을 날기까지 그 안에 자신들의 꿈을 담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도 꿈은, 이루어진다. **AF**



때론 거짓말처럼 사는 게 더 짜릿하다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톰 행크스 주연의 동명 영화가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다. 대중적인 스토리에 영화의 스텔과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원작을 뛰어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 틸 없는 무대 전환과 배우들의 아찔한 군무, 캐릭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성 있는 음악으로 지난해 브로드웨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전학 첫날 선생님이 위장해 1주일 동안 전교생을 꿀탕 먹인 당돌한 10대 프랭크. 부모의 이혼으로 무작정 가출한 프랭크는 본격적으로 남을 속이는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기자를 사칭해 항공사의 허점을 알아내고 조종사로 위장해 모든 항공 노선에 무임승차는 물론 회사 수표를 위조해 전국 은행에서 140만 달러를 가로챈다.

21년 경력의 FBI 최고의 요원 칼 핸러티가 오랜 추적 끝에 드디어 프랭크의 호텔방을 덮친다. 하지만 칼과 마주친 프랭크는 정부 비밀요원으로 둔갑, 증거물을 챙긴다며 위조수표를 챙겨 들고 여유롭게 빠져 나온다. 뒤늦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칼은 자존심 회복을 결심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 더욱 눈길을 끈다.

엄기준, 슈퍼주니어의 규현, 샤이니의 키 그리고 소녀시대의 써니 등이 출연한다. 세기를 놀라게 한 슈퍼 거짓말 히어로의 일대기로 올 여름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보자.

- 기간 : 6월 10일까지
- 장소 :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 가격 : 비지니스석 10만 / 이코노미석 6만원
- 홈페이지 : www.catchmeifyoucan.co.kr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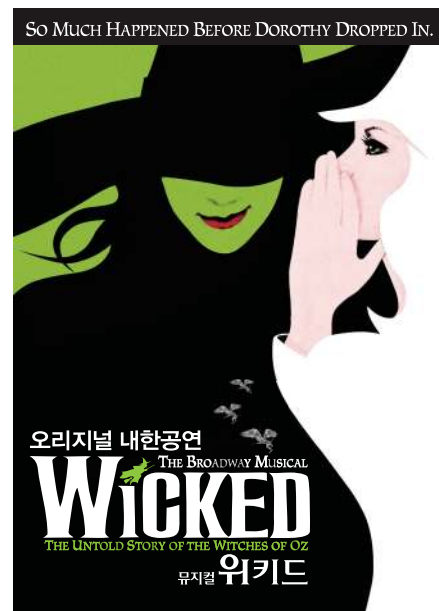
세계를 매료시킨 오즈의 마녀
뮤지컬 <위키드>

뮤지컬 <위키드>가 최초의 아시아 투어 공연으로 찾아온다. <위키드>는 2003년 10월 초연된 후 입소문을 타고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9년째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브로드웨이 히트작이다. 전세계적으로 3조의 매출기록을 세웠으며 3,0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국내 여행객 사이에 “자유의 여신상은 안보더라도, <위키드>는 꼭 봐라”라고 할 작품으로 손꼽혀왔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베스트셀러 ‘위키드’를 뮤지컬로 옮긴 작품으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오즈의 마녀들에 대한 이야기다. 도로시가 오즈에 떨어지기 전 이미 그곳에서 만나 우정을 키웠던 두 마녀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나쁜 마녀로 알고 있는 초록마녀가 사실은 불 같은 성격 때문에 오해 받는 착한 마녀이며, 착한 금발마녀 글린다는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를 독차지하던 허영덩어리 소녀였다는 기발한 상상력을 펼친다. 전혀 다른 두 마녀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두 마녀가 어떻게 해서 각각 나쁜 마녀와 착한 마녀가 되었는가를 매력적인 스토리로 풀어낸다.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무대를 한국에서 만나는 절호의 기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브로드웨이 정통 뮤지컬의 내한공연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으게 한다.

- 기간 : 7월 31일까지
- 장소 :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가격 : S 9만 / A 7만 / B 5만원
- 홈페이지 : www.wickedthemusica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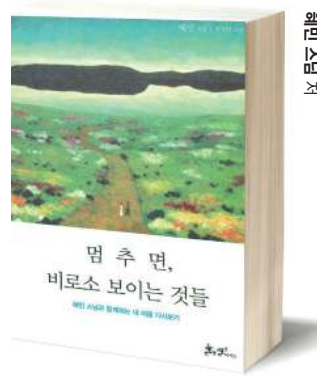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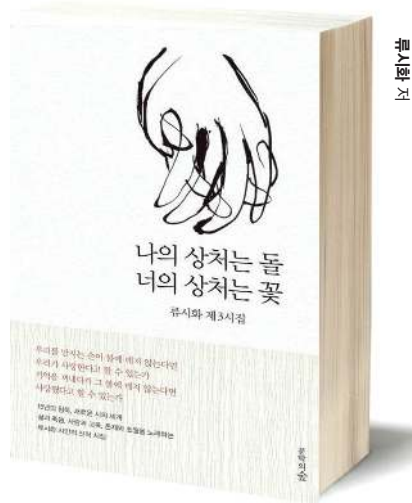
월간 「공군」 4월호를 읽고서

* Letters to the Editor

,

* 책마을

Opinion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12년도 어느덧 절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겨우내 단단하게 얼었던 강물은 녹아 힘차게 흐르고, 탕탕했던 꽃눈은 푹하고 터져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졌습니다. 돌아보니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이 순식간에 푸른 옷을 입고 손을 흔들어댁니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변함없이 흐르고 자연은 시간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며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에 쫓겨 사느라 뒤돌아볼 여유도 없고, 항상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일 년, 이 년 보내다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숨만 나오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두렵고 후회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6월입니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서는 새해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얼마큼 이루셨고 또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저 역시 많은 것들을 다짐하고 계획했지만 '벌써 6월!'이라는 경악스러운 감탄사와 함께 '어휴!'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마음은 항상 뭔가에 쫓기듯 불안한데 몸은 나날이 게을러져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급하게 무엇을 하려하기보다는 더 게을러져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보면 앞만 보게 되고, 좌우로 지나치는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지요. 때론 조금 천천히 느리게

간더라도 이런 저런 생각도 하고 여유를 즐기면서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문득문득 느끼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월에 소개해드리는 두 권의 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헤민 스님 저, 우창현 그림, 쌤앤파커스, 2012),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류시화 저, 문학의숲, 2012) 모두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해줍니다.

특히, 헤민 스님과 류시화 시인은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들로 헤민 스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UC버클리대학교에 입학하여 영화 공부를 하던 중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에서 종교 관련 공부를 하던 중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류시화 시인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이후 시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중 모든 것을 버리고 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각종 명상 관련 서적으로 다시 문단에 나서며 많은 이들의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바로 한 곳만을 보고 바쁘게 달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박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도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벌써 한 해의 중턱에서 몸과 마음만 급해지기보다는 쉽표 한 번 찍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만끽하는 6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AF**

2012 June

Vol.408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2 June

Vol.408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6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6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6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6월 30일까지

1. 이라크군이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를 격추시켰을 때 참고했던 영화로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무엇인가?
2. 영화 <마다가스카3>에서 캡틴 듀브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인공 동물친구들이 위장취업한 곳은 어디인가?
3.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두 남녀 주인공은 누구인가?

4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베를린 공수작전 2.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 3. 마술피리
퀴즈 당첨자 충남 계룡시 **지인구** ● 경기 성남시 **하지민** ● 경기 평택시 **이태호**
부산 금정구 **임성모** ● 서울 성동구 **전행숙** ● 대구 달서구 **박미경**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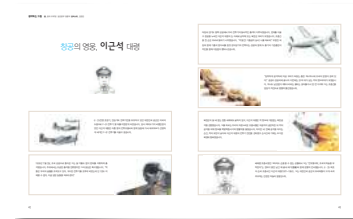


- 06 경청노트 국가안보와 공군의 가치
- 08 Pioneers up above 존 와든
- 10 World-Wide Vision Exhibiting airpower
- 14 Global AF Apache Longbow Down
- 18 Leadership+ 고난은 성공을 위한 음모

COVER STORY



강하고 튼튼한 공군!
 표지촬영(앞, 뒤) 김재기 | 프리랜서 사진사
 표지모델 남 중위 정승제 | 1전비 206대대
 여 대위(진) 이소영 | 15비 255대대
 캘리그래피 8급 엄이주 | 국군인쇄창



- 20 기획특집 강하고 튼튼한 공군!
- 32 Photo Sketch 도발하면 공군력으로 제압한다! Max Thunder!
- 38 포토프레임@AF 전투비행단 대비태세 점검
- 40 AIR FORCE MONTHLY 2012. 06. NEWS
- 42 생각하는 그림 창공의 영웅, 이근석 대령



월간 「공군」 6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6월 30일까지

1. 이라크군이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를 격추시켰을 때 참고했던 영화로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무엇인가?
2. 영화 <마다가스카3>에서 캡틴 듀브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인공 동물친구들이 위장취업한 곳은 어디인가?
3.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두 남녀 주인공은 누구인가?

4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 정답** 1. 베를린 공수작전 2.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 3. 마술피리
- 퀴즈 당첨자** 충남 계룡시 **지인구** ● 경기 성남시 **하지민** ● 경기 평택시 **이태호**
 부산 금정구 **임성모** ● 서울 성동구 **전행숙** ● 대구 달서구 **박미경**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간헐 / 테리본 · 명신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자
 신고 및 인보성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7
 (www.dsc.mil.kr)